

2007년을 대구 경제회생 원년으로

지방의원

전성배 대구시의원

올해에는 우리지역에 테크노폴리스 조성, 혁신도시 건설,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 등 대형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또한, 연말 대통령 선거 등 정치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한 해인 만큼 대구·경북지역이 한 단계 도약하는 경제회생의 원년이 되도록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.



수권대회 유치특위 활동 등 처음이지만 승부하는 자세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

습니다.

로서 대구·경북은 물론 중앙정부와도 협력하여 대구가 개최지로 결정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.

또한, 달성군이 1998년 대구시로 편입되었지만 달성군민들이 대구시민으로서 지위와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철 1호선 대곡~명곡 연장의 조속한 추진, 테크노폴리스 조성 등 군민들의 경제 회생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, 무엇보다도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력하여 대구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.

초선의원으로서 부족하지만 민생현장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의원, 상호 협력하는 의원, 문제점을 지적하지만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겠습니다.

달성군 경제 회생 복지 증진 위해 노력

지난 2006년 7월 초선의원으로 시 의정활동을 시작하여 5대 의회 개원 첫 시정질문을 통해 회원유원지 개발,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등 달성군 지역은 물론 시정 현안 전반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으며, 3차례의 예산결산특위 활동, 2011년 세계육상선

앞으로는 지역의 토박이 초선의원으로 주민과 항상 함께 해온 경험과 열정을 바탕으로 시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.

금년에는, 이제 곧 발표될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지 결정에 있어서 유치특별위원회 간사